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0. 25.(일) 11:00
(지면) 2026. 10. 26.(월) 조간

배포 2026. 10. 23.(금) 오후

‘하나의 바다, 하나의 안전’ 해양모빌리티의 미래를 부산에서 만난다

- 10월 26~28일, BPEX에서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최
- 행사장 인근 북항 친수공원에서 다양한 해양 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는 10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6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는 국민에게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안전’을 주제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일보와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주관한다.

특히 올해 엑스포는 대한민국과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와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되어 국제기구와 주요국 정부 인사 등 세계 해사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해양산업의 기술력을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자율운항·무인 모빌리티 기술관, ▲친환경 모빌리티·탄소 중립관, ▲해양 첨단 안전·AI 재난 대응관, ▲비즈니스관 등이 운영되고, 참여 기업과 해외 구매자를 연결하는 수출 상담 지원과 기술·제품 설명회도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장 인근의 북항 친수공원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명조끼 꾸미기 및 미니 런웨이, ▲가상현실(VR) 해양 안전 체험, ▲심폐 소생술 및 구명설비 사용 교육 등 다양한 해양 안전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공식 누리집(kms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은 “해양 수도 부산에서 첨단 해양기술과 다채로운 안전 체험을 만나보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엑스포가 해양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상 속 해양 안전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엑스포는 우리 기업과 연구 기관의 수준 높은 해양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전시장에서 소개된 기술들이 실제 선박과 항만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51-773-5810)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051-773-5829)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해양안전팀	책임자	과 장	조진숙 (051-888-5270)
		담당자	팀 장	송현수 (051-888-5283)

2026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KOREA MARITIME MOBILITY · SAFETY EXPO 2026



일자 2026. 10. 26. ~ 28.

장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BPEX 이벤트홀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일보사
THE BUSANILBO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KOREA SHIP MANAGEMENT ASSOCIATION